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 -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내담아동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

오 지 현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양육행동이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현재 아동상담을 받고 있는 아동 중 초등학교 3~6학년 사이의 내담아동 어머니 91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고,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단순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중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즉,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높을수록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즉,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요인 중 합리적 지도, 애정, 과보호, 성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즉, 정서표현양가성이 낮을수록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합리적이며 애정을 표현하고, 성취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과보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정서표현성과 양육태도의 직·간접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행동(애정, 과보호)을 통해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직·간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행동,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정서·행동문제 아동, 내담아동 어머니

* 본 논문은 2009년도 한국인간발달학회·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1) 교신저자 :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솔빛정신과 심리치료사(E.mail : maple282@nate.com).

I. 서론

아동상담은 성인상담과는 다른 독특한 학문 분야로 인정되어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는 내담 아동을 상담실로 의뢰하고 종결하는 과정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상담과정에서 부모의 참여가 상담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오지현, 성영혜, 조유진, 2008, 재인용). 뿐만 아니라, 아동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발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여 아동의 성장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Saarni, 1989)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상담에서는 어머니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아동상담의 관점에서는 내담 아동 어머니와 자녀가 맺는 관계의 질은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관련하여 파악하여야 하는 일차적 요소이며, 또한 상담성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요소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적응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비롯한 모-자녀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는데, 이중 몇몇 연구들(김연, 황혜정, 2005; 장영애, 박정희, 2008; 장영애, 이영자, 2007; 양현아, 박영애, 2004; 이정운, 이경아, 2004)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모-자녀 간에 맺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양육행동과 의사소통의 질은 자녀의 정서 발달 및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즉,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아동의 심리적 적응능력,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양육행동과 모-자녀 의사소통의 질이 자녀의 적응이나 부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아동 정신건강이나 상담 분야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유형에 관심을 두고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내담아동의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작업은 아동상담 분야의 전문가가 모-자녀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관점에 근거해 몇몇 연구들은 모-자녀 관계와 관련 있는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을 강조하는 결과들을 보고한 바 있다. 즉, 어머니는 자녀와 정서적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나(Dix, 1991; Dunn & Brown, 1991), 어머니가 자신의 미해결된 감정 및 미숙한 정서표현 성향 등으로 인해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Siegel & Hartzell, 2004)가 보고된 바 있어,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특히 정서표현 성향이 모-자녀 관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 각각 다른 맥락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유형을 예측하는 정서적 특성 변인을 밝히려는 시도로서 양육행동과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연구(배민정, 정윤경, 2008; 오지현, 조유진, 2009b)

들이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의 흐름과도 맥락을 같이하는데 즉, 정서표현성만으로는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승미, 오경자, 2006; 최해연, 2008; King & Emmons, 1990; Pennebaker, 1985).

‘정서표현양가성’이란 행동으로 드러난 표현이나 억압보다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억압의 필요성 사이에 갈등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정서표현양가성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는 개인의 정서적·사회적 기능의 핵심적 관련변인으로 간주된다(King & Emmons, 1990). 예를 들어, 정서표현양가성은 삶의 만족과는 부적상관을, 신경증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 고통과는 정적상관이 있으며(Katz & Campbell, 1994; King, 1998; Mongrain & Zuroff, 1994), 또한 정서인식능력과의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King, 1998). Mongrain과 Vettese(2003)은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 관계적 기능을 탐색하였는데 그 결과, 정서표현의 양가성이 높은 여성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지 못하며, 긍정적 정서표현이 낮고, 무엇보다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간의 일치가 낮음을 발견하였다.

요컨대, 양육행동과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들(배민정, 정윤경, 2008; 오지현, 조유진, 2009b)을 통해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같은 변인이 밝혀진 것은 최근의 심리학적 연구 흐름과 맥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인 정

서표현양가성이 양육행동을 거쳐 모-자녀 의사소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특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곽소현, 김순옥, 2006; 배민정, 정윤경, 2008; 정미경, 김영희, 2003)에서 모두 일반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한 연구대상 표집에 관한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군과 비상상담 아동의 어머니 집단의 정서, 성격 및 양육행동 특성을 비교한 연구(송현정, 김광웅, 2008; 오지현, 조유진, 2009a) 결과에서 두 집단 간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언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 문제로 아동상담을 받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내담아동의 어머니 특성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객관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모-자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정서적 특성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이라는 변인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내적특성이 실제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모-자녀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는 임상 장면에서 정서적 어려움과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아동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와줌으로써 내담아동 어머니를 위한 상담 개입에 보다 유용하고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미치는 직·간접 경로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로 인해 상담기관에 내원하여 아동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아동의 어머니들 중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사이의 학령기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은 서울 및 경기지역의 아동 상담소, 소아정신과, 복지관 내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상담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를 제외한 내담아동 어머니 91명을 표집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문제 유형은 심리검사 결과와 주 호소 문제를 근거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어머니, 아동의 일반적 특성 (N= 91)*

어머니	구 분	n (%)
연령	만 29세 이하	2 (2.2)
	만 30~39세 이하	45 (49.4)
	만 40이상	44 (48.4)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32 (35.2)
	2년제 대학졸업	23 (25.3)
	4년제 대학졸업이상	36 (39.6)
직업	사무직	19 (20.9)
	전문직	16 (17.6)
	판매직 및 기타	9 (9.9)
	전업주부	47 (51.6)
월수입	200만원 미만	15 (16.5)
	200~500만원 미만	63 (69.3)
	500~1000만원미만	10 (11.0)
	1000만원 이상	3 (3.3)
아동	구 분	n (%)
성별	남	67 (73.6)
	여	24 (26.4)
학년	3-4학년	56 (61.6)
	5-6학년	35 (38.5)
상담 기간	3개월 미만	24 (26.4)
	3~6개월 미만	31 (34.1)
	6개월~1년 미만	12 (13.2)
	1년 이상	24 (26.4)
문제 유형	사회성 및 또래관계	28 (30.8)
	우울, 불안	23 (25.3)
	주의산만, 과잉행동	17 (18.7)
	학습 및 학교 적응	13 (14.3)
	부모-자녀관계	8 (8.8)
	기타	2 (2.2)

주. *무응답에 따라 변인의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2. 측정 도구

정서표현양가성(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번안, 타당화한 King과 Emmons(1990)의 정서표현 갈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8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한다. 정서표현의 양가성 질문지는 정서표현, 정서관리, 정서규제, 미묘한 정서표현에 대한 고민과정에서 유기체가 경험하는 양면성 혹은 양가감정을 측정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억압의 필요성 사이에 갈등하는 성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제작 시에는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10문항,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18문항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두 하위요인 군집 간 상관이 높아 단일 구성개념으로 본다는 King과 Emmons(1990)의 견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단일 요인 척도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양육 행동

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 자신의 현재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이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할 것이다. 본 척도는 총 51개 문항이 7개의 하위변인(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일관성 있는 규제가 신뢰도

계수가 .46 으로 낮아 하위요인에서 제외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하위 요인 구성과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과 질을 검사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CI)를 민혜영(1990)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 문항, Likert 5점 척도로 평가 한다. 각 하위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방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은 모-자녀 상호간의 감정과 정보 교환이 솔직하고 자유로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와 만족 정도가 높은 정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역기능적 의사소통(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은 의사소통을 회피하거나 선택적으로 하며 상대방을 불신하고 의사소통

표 2.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변인 구분	하위 영역	신뢰도
정서표현 양가성		.93
모-자녀 의사소통	개방적 의사소통	.91
	역기능적 의사소통	.86
	합리적 지도	.89
	애정	.89
	권위주의통제	.77
	과보호	.75
	성취	.73
양육행동	적극적 참여	.80
	일관성 규제	.46

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 요인 구성과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는 2009년 3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각 기관의 상담자들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각 기관에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이 상담자에게 공개됨을 우려해 거짓으로 응답을 할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봉투마다 밀봉할 수 있도록 양면테이프를 붙이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분석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행동,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 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연구문제 분석 전에, 주요 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행동,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 정도를 파악하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표 3.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행동,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정서표현양가성	-								
2. 합리적 지도	-.23*	-							
3. 애정	-.30**	.76***	-						
4. 권위주의통제	.04	-.25*	-.47***	-					
5. 과보호	.22*	-.11	-.14	.30**	-				
6. 성취	-.26*	.64***	.56***	-.21*	.10	-			
7. 적극적 참여	-.18	.69***	.72***	-.36***	.08	.53***	-		
8. 개방적 의사소통	-.43***	.54***	.68***	-.36***	-.38***	.33**	.55***	-	
9. 역기능적 의사소통	.45***	-.44***	-.60***	.41***	.45***	-.33**	-.45***	-.69***	-

* $p < .05$, ** $p < .01$, *** $p < .001$

같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변인들끼리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양육행동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합리적 지도, 애정, 성취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과보호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양가성과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부적상관을 보이며,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는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담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합리적 지도, 애정, 성취, 적극적 참여와는 정적상관을 보였고, 권위주의 통제, 과보호와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권위주의 통제, 과보호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합리적 지도, 애정, 성취, 적극적 참여와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미치는 영향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b = -.43$, $p < .001$)은 개방적 의사소통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표현양가성의 전체 설명력은 18% ($F = 20.07$, $p < .001$)로 나타났다. 또한, 내담아동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해 정서표현양

표 4.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N=91)

준거변인	<i>b</i>	β	r^2	<i>F</i>
개방적 의사소통	-.43***	-.20	.18	20.07***
역기능적 의사소통	.45***	.18	.21	23.17***

** $p < .01$, *** $p < .001$

가성($b = .45$, $p < .001$)은 예측변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서표현양가성의 설명력은 21% ($F = 23.17$, $p < .001$)로 나타났다. 즉, 내담아동 어머니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더 낮을수록 자녀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증진되고,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아질수록 자녀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합리적 지도($b = -.24$, $p < .05$), 애정($b = -.30$, $p < .01$), 과보호($b = .22$, $p < .05$), 성취($b = -.26$, $p < .05$)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합리적 지도에서 5% ($F = 5.15$, $p < .05$), 애정에서 8% ($F = 8.61$, $p < .01$), 과보호에서 5% ($F = 4.66$, $p < .05$), 성취에서 7% ($F = 6.57$, $p < .05$)로 나타났다. 즉, 내담아동 어머니는 정서표현양

가성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과보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이성적으로 설명해주려 노력하

며,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녀가 성취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5.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N=91)

준거변인	<i>b</i>	β	r^2	<i>F</i>
합리적 지도	-.24*	-.07	.05	5.15*
애정	-.30**	-.10	.08	8.61**
권위주의통제	.04	.01	.00	.18
과보호	.22*	.07	.05	4.66*
성취	-.26*	-.05	.07	6.57*
적극적 참여	-.18	-.04	.03	2.94

* $p < .05$, ** $p < .01$

3. 정서표현 양가성 및 양육행동이 내담아동 어머니의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미치는 영향

내담아동 어머니의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이 있는 설명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행동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온 β 값과 표 5의 β 값을 기준으로 경로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경로분석 결과에서

표 6. 정서표현 양가성 및 양육행동이 내담아동 어머니의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미치는 영향(N=91)

준거변인	예측변인	<i>B</i>	β	R^2	<i>F</i>
개방적 의사소통	정서표현양가성	-.09	-.20**	.61	18.64***
	합리적 지도	-.05	-.03		
	애정	.61	.46***		
	권위적 통제	.04	.03		
	과보호	-.41	-.30***		
	성취	-.14	-.06		
	적극적 참여	.57	.27*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서표현양가성	.10	.24**	.58	16.13***
	합리적 지도	.19	.14		
	애정	-.42	-.36**		
	권위적 통제	.08	.06		
	과보호	.46	.37***		
	성취	-.16	-.08		
	적극적 참여	-.42	-.22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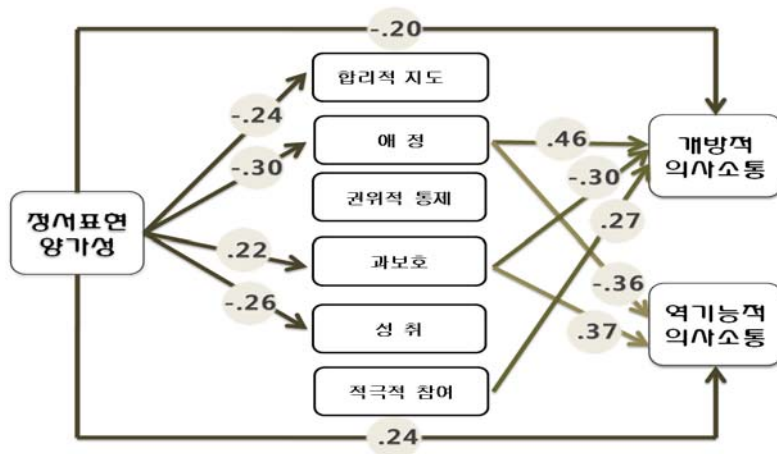


그림 1. 내담아동 어머니의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경로 모형

내담아동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가 있는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6과 그림 1에 의하면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beta = -.20$, $p < .01$)과 동시에,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애정($\beta = .46$, $p < .001$), 과보호($\beta = -.30$, $p < .001$)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beta = -.24$, $p < .01$)과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애정($\beta = -.36$, $p < .01$), 과보호($\beta = .37$, $p < .001$)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표현 양가성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합리적 지도($\beta = -.24$, $p < .05$)와 성취($\beta = -.26$, $p < .05$)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으로 이어지는 간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표 7. 내담아동 어머니의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설명변인들의 직, 간접효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애정	과보호	
개방적 의사소통	정서표현양가성	-.20	-.14	-.07	.41
	애정	.46	-	-	.46
	과보호	-.30	-	-	-.30
	성취	.27	-	-	.27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서표현양가성	.24	.11	.08	.43
	애정	-.36	-	-	-.36
	과보호	.37	-	-	.37

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담아동 어머니의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1.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서표현양가성이 내담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내담아동 어머니의 경우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억압의 필요성 사이에 갈등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낮을수록 자녀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증진되고,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자녀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서표현 양가성이 모-자녀 관계 중 의사소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밝힌 연구 결과(오지현, 조유진, 2009b)와 일치한다. 또한, 정서표현의 양가성이 높은 여성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간의 일치가 낮을 것이라고 주장한 보고(Mongrain & Vettese, 2003)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내담 아동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

할 것이라는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내담아동 어머니는 자녀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빈번 할수록 자녀의 문제 행동 및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오지현, 조유진, 2009a; 양현아, 박영애, 2004; 장영애, 박정희, 2008)과 연관 지어 살펴 볼 수 있겠다. 즉, 내담 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자녀의 적응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며(박보은, 정윤경, 2008), 이러한 어머니의 특성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도 관련이 높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배민정, 정윤경, 2008)와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적 개입 시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탐색과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서표현양가성이 내담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담아동 어머니의 경우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억압의 필요성 사이에 갈등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

수록 자녀에게 과보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이성적으로 설명해주려 노력하며,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녀가 성취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어머니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며 정서표현양가성이 낮은 어머니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배민정, 2008)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정서 관련한 신념과 철학이 양육행동과 관련 있으며(Gottman, Katz, & Hooven, 1996), 부모가 스스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보고(Dix, 1991)들이 본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요컨대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변인 중 정서표현양가성이 긍정적,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육행동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을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 정서표현양가성 및 양육행동이 내담아동 어머니의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미치는 영향

앞서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정서표현양가성과 양육행동의 직·간접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경로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인 정서표현양가성이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Eisenberg, Cumberland 와 Spinard(1998)가 발견한 모델 즉, 부모의 정서적 특성에 따라 정서관련 행동적 특성, 중재요인 등의 과정에 따라 아동의 정서가 사회화 된다는 모델 맥락과 일치하며, 부모의 정서·행동적 특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궤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Denham, Warkman, Cole, Weissbrod, Kendziora & Zahn-Waxler, 2000)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인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라는 행동적 측면을 거쳐 모-자녀 의사소통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과보호와 애정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즉,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나타난 부정적 양육태도 중 과보호만이 모-자녀 의사소통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즘 임상현장에서 부모들의 특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아동 중심적인 양육태도라고 생각하는 행동 방식들이 실제로는 과잉보호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김춘경, 2000)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즉, 과거에는 아동의 부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이 두드러졌지만 최근 부모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 및 지식이 많아지면서 점차 권위적인 태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에 최근에는 정서,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송현정, 2007; 허묘연, 2004; Nelson & Erwin, 2000).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과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행동 중 애정 요인이 간접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즉, 본 연구의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담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높은 성향을 보이더라도 애정 표현이 많아지면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내담아동 어머니의 애정 표현의 정도가 정서표현양가성 영향력의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애정표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담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지지해 준다면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기한 바에 근거해 본 연구는 정서문제 및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시 부모 상담에서 어머니의 내적 특성인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양상과 행동적 특성인 양육행동 모두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질을 증진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정서표현의 양가성이 높은 내담아동 어머니들에게 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탐색하고 고려하는 내적차원의

중재와 함께 ‘과보호’를 줄이고 ‘애정표현’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지도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모-자녀 간 의사소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부모 상담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상담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본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이 행동적 특성인 양육행동을 통해 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정서관련 연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서표현양가성’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이를 통해 부모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아동상담 연구 영역에서 주로 내담 아동에게만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상담소에 내원한 아동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상담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담 아동 어머니의 특성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객관화시킴으로써 이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의 계속성을 촉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경우 표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기간이 3개월 미만에서 1년 이상에 걸쳐 넓게 분포된 내담아동의 어머니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가 상담초기에 갖고 있었던 정서·행동적 특성들이 상담과정에서 진행되면서 영향을 받고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연구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 때문에 내적타당도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추후 연구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문제유형에 따라라도 내담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의 유형 즉, 내재화 또는 외현화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보는 방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설계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 및 의사소통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였는데, 어머니와 아동간의 지각 차이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의사소통 유형 또한 함께 측정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재검증 작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방법은 주관성을 배제하는데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 3자의 보고나 전문가의 관찰 등을 통한 다양한 측정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담아동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서, 행동적 특성의 경로를 이론적 근거 하에 살펴보고, 이러한 시도가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모-자녀 간 의사소

통 유형이나 아동의 문제행동을 결정된다는 관점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포함한 부모-자녀 관계에 개인적, 환경적 또는 상호호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변인을 고려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소현, 김순옥 (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 김 연, 황혜정 (2005).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0(4), 69-88.
- 김춘경 (2000).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 심리학적 분석. *놀이치료연구*, 4(1), 35-40.
- 민해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보은, 정윤경 (2008). 대학생이 회고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 양가성(포스터 발표 초록).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인생초기의 사회적 삶*, 189-190.
- 박성연, 이 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9.
- 배민정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서표현에

- 대한 양가성,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민정, 정윤경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에 따른 양육태도 및 자녀의 문제행동 (포스터 발표 초록).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인생초기의 사회적 삶, 193-194.
- 송현정 (2007). 어머니의 아동기 모-자녀 관계 및 성격 특성이 현재 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현정, 김광웅 (2008). 놀이치료군과 비놀이치료군 어머니의 아동기 모-자녀관계, 성격 특성 및 양육행동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4), 23-34.
- 양현아, 박영애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47-860.
- 오지현, 성영혜, 조유진 (2008). 부모상담에서 어머니의 자기은폐 수준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작업동맹의 관계. 아동학회지, 29(6), 197-211.
- 오지현, 조유진 (2009a).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에게서 나타난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의사소통 유형, 양육행동의 차이. 아동학회지, 30(5), 195-208.
- 오지현, 조유진 (2009b).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정서, 행동문제를 보이는 내담 아동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정서·행동장애 연구, 25(3), 93-109.
-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 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13-128.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장영애, 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3(2), 69-85.
- 장영애, 이영자 (2007).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49-166.
-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 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최해연, 민경환 (2007).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와 성격, 21(4), 71-89.
- 허표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Denham, S. A., Warkman, E., Cole, P. M., Weissbrod, C., Kendziora, K. T., & Zahn-Waxler, C.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 ex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1), 23-45.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3-25.
 - Dunn, J., Brown, J. R.,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513-524.
 - King, L. A. (1998).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reading emotions in situations and f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53-762.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Mongrain, M., & Vette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 Mongrain, M., & Zuroff, D. C.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 symptoms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3), 447-458.
 - Nelson, J., & Erwin, C. (2000). *Parents who love too much: How good parents can learn to love too more wisely and develop children of character*. Roseville, CA: Prima Publishing.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2), 82-95.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R. A. Tompson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115-18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iegel, D. J., & Hartzell, M. (2004). *Parenting from the inside out*. New York: Penguin.
- 1 차원고접수 : 2009. 12. 31.
수정원고접수 : 2010. 02. 15.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4.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ing Behaviors and Types of Mother-children's Communication

Oh, Ji hyun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renting behavior in terms of different types of mother-children's communication(open communication, problems in communication) as perceived by the mothers. The subjects were 91 mothers. Data were analyzed by sim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Our results showed that (1)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ed all components of mother-children's communication. (2)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ed parenting behavior-logical guidance, affection, support of achievement and overprotection-. (3)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showed that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ed all components of mother-children's communication of parenting behavior-overprotection and affection-.

Key words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ing Behavior, Type of Communication Clients in Emotional-Behavioral Problem, Mothers of the Clients